

초저금리 시대 종결... 6년만에 인상

한은, 기준금리 0.25%p 오른 1.50%로 ↑

美 이달 금리인상 확실히... 자본유출 예방

지난 3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 1.25%의 사상 최저금리 시대도 끝나게 됐다.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종결하고 약 6년 반 만에 금리를 1.50%로 전격 올린 데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우호적으로 조성된 영향이 크다. 견조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통화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미래 완화의 정도가 커지게 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는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4%를 찍으면서 올해 3% 성장이 가뭄할 만큼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수출 호조세 만큼 뒤따르지 않던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걷혔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6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국과의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줄었다.

민간 경제전망을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에서 계절적 요인과 불규칙 변동을 빼고 산출한 ESI순환변동치 지수도 11월 기준치 100을 넘어섰다. 기준치 100을 넘는 것은 5년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만큼 과거보다 경기전망을 좋게 보는 민간이 늘었다는 얘기다. 통화 완화 기조를 바꿀 타이밍을 재고 있던 한은으로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그토록 저금리 기조를 탈피하려고 한 데에는 그동안 통화완화 정책으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14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문제

다.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한은의 부담감은 크다. 한은은 지난 2012년 7월 연 3.0%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뒤 지난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까지 금리를 내렸다.

장기간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려났다. 지난 9월 기준 시중 통화량(광의통화·M2) 249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저금리 기조에 투자할 곳이 없는 자금은 부동산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빚은 빠르게 몸집을 불렀고, 급기야 지난 9월 말 가계신용은 1419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평소에도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치곤 했다. 이 총재는 "실질 금리가 오래가면 금융 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이 장기화되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12월 미국이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점도 한은으로서는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2월 현재의 연 1.00~1.25%의 금리를 0.25%p 올리고, 우리나라가 금리(기존 연 1.25%)를 묶어두게 되면 미국 금리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국내에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막을 예방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환율 급락세는 금리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올라가면 원화 강세가 급격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금리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환율은 곧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금융위 전란 북한과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리스크가 불거지긴 했지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은 만큼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진 못했다.

/뉴스



쌀 적정생산 함께해요 김상남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과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쌀로 만든 제품들을 둘러보이며 농진청의 식량산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코레일 전북 대학생봉사단

“수고하셨습니다” 해단식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한광덕)는 지난 30일 익산역 회의실에서 '코레일 전북본부 2기 대학생봉사단' 해단식을 가졌다.

해단식에서는 대학생봉사단원들에게 6개월 동안의 활동성과를 인정하는 인증서가 수여되었고, 봉사단원들의 소감발표, 봉사활동 우수사례 공유 등 2017년 주요성과와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코레일 신입사원들이 함께해 코레일에 입사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도 가져 봉사단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광덕 전북본부장은 “전북지역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지역의 인재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전북본부 대학생봉사단은 지난 5월 발대식을 갖고 소외계층과 함께 떠나는 해피트레인, 농촌지역 봉사활동, 초등학교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여 안내도우미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코레일 직원과의 함께하는 취업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익산=정원원 기자

탄소융합기술원 사업화지원 초기기업 ‘창업의 요람’ 되다

지원기업, 투자 2억원·R&D자금 3억여만원 등 성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정동철)이 추진해온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이 창업초기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인예코(대표 심재무)가 기술원이 지원한 기능성 친환경건축자재 아이에코블록 사업화를 통해 사업기간 동안 2억 원의 투자 유치와 3억5600만원의 R&D자금 유치, 8명의 고용 증진, 5건의 특허·디자인·상표 등 출원 및 4건의 등록 완료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은 기술원이 지난 2015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프로그램으로, 창업 1년~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보완과 마케팅, 투자연계, 수출, 멘토링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예코는 또, 건축자재로는 최초로 환경친화 예방부문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친환경건축자재 아이에코블록'은 제품 표면에 있는 특유의 미세한 기공을 통해 간편한 설치만으로 습도 조절과 악취 제거는 물론, 환경친화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자연 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독자적인 방충기능과 강화된 내화성, 면역력 증진 기능 등의 다양한 편의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수한 기능성 건축자재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효성·전북 탄소성장펀드로부터의 2억원 규모의 투자 유지는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의 컨소시엄 기관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것으로, ㈜인예코의 건설한 기업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이 업체는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마케팅 상담회 참여를 통해 일본과 미국, 필리핀, 멕시코, 쿠웨이트, 독일, 영국, 베트남 등 8개국과 MOU를 체결했고, 수출 새싹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추진해 해외의 수

출 전문가사와 수출연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기술원은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으로 지난 2015년 국비와 시비포함 9억4300만원을 확보해 우수 창업기업 18개를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1개 창업기업을 중점 지원했다.

아울러, 기술원은 기업의 마케팅과 수출, 투자유치, 멘토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들의 성과창출도 돕고 있다.

신재무 ㈜인예코 대표는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과 마케팅지원사업 등을 신청해 기업의 마케팅역량과 사업역량을 강화한 것이 기능성 친환경건축자재 아이에코블록의 사업화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현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정부기관의 R&D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탄소섬유를 활용한 아이에코탄소블록’이 출시되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창업맞춤형사업과 창업도야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공동 R&D, 투자유치, 마케팅 활성화, 수출지원 등을 통해서도 창업기업의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자 산 매 각 공 고

사 건 2015회합 31호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씨티아이

채무자 주식회사 씨티아이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매각 대상 자산의 표시

물건번호	부동산번호	부동산 주소/물건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1	1	익산시 왕궁면 장암리 1366	공용부지	16,043.7㎡	씨티아이
2	2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7-17	공장건물	6,113.2㎡	
3	3	익산시 왕궁면 장암리 1366	사출성형기	12점	

※ 부동산번호 2, 부동산에는 제시의 건물 포함

2. 매각방법 및 일시, 장소 등

가. 매각방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나. 매각조건

- 입찰조건을 고려하여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석에서 최고가 이상으로 제일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방법 및 유의사항

- 입찰마감일, 최저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최저입찰보증금(원)		최저입찰가격(원)		%	비고
1회차	2017. 12. 11. 09:00	물건번호 1	6,276,293,720원	100%	익산시 왕궁면 장암리 1366에 해당
2회차	2017. 12. 11. 10:00	물건번호 1	4,393,405,646원	70%	
3회차	2017. 12. 11. 11:00	물건번호 1	3,075,283,952원	49%	

※ 입찰보증금은 낙찰가의 10%

- 개찰은 매회차 마감시 이후 10분에 실시하며, 회생자는 참관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 입찰서 양식 : 채무자 회사에 비치
- 입찰서 제출방법 : 관리인의 입찰관련 사무실에 현장 접수되어야 하며, 반드시 입찰봉투표면에 '(주)씨티아이 매각 입찰서 제출'이라고 표시하고 봉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장소 :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7-17, 관리인실

라. 입찰의 성립과 낙찰자 결정 등

-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고 부동산 및 기계기구 입찰매각이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입찰마감 일정시까지 입찰장소에 접수(도착)된 입찰서만 유효하며, 입찰시간 이후에 도착한 입찰서는 접수받지 않고 효력이 없음.
- 입찰조건을 고려(입찰보증금 입찰가에서 공제)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개찰결과는 낙찰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안내함.

3.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결과를 통지 받은 후, 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낙찰이 무효 된 경우, 차순위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득함).
나.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찰금액의 10%로 하며, 매매잔금은 낙찰 및 계약체결에 대한 법원의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함(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다. 낙찰자 결정과 매매계약은 전수지방법원 수석부의 허가를 득하는 것을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이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별도의 이차 없이 낙찰자에게 반환한다.

4. 입찰서류

가. 입찰서 : 별지양식 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라.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위 매각대상물을 입찰 당시의 현황대로 인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인에 대하여 위 목적물 자체의 하자(파손, 수량불일치 등)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전 위 매각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실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의사표시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매수자는 매도인(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씨티아이)에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를 2019년까지 임대해 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매수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차입은 매도인의 회생계획안에서 책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함). 더불어 매도인이 입찰한 물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없을 경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최우선하여 제입대를 해주어야 합니다.

6. 기타

이 건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씨티아이 기획경영팀(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7-17, 전화 063)838-4747, 팩스 063)838-4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4. 회생채무자 (주)씨티아이의 관리인 유 병 호